

바라만 바다



해안선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MAGAZINE

꿈같은 시간이 펼쳐질 거예요
을여름이 바닷가에서라면



2023
Summer
-
Vol.54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그림 오레오오



2023 Summer
KOMSA MAGAZINE

Vol.54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3년 7월 7일(통권 54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CONTENTS

뜻뜻 바닷물

- 4 바닷물의 계절
- 6 해세이
눈부시게 빛나는 제주의 추억
여름 바다 이야기
- 8 어촌갈지도
울릉도&저동 어촌계
- 16 바닷물 예술관
이현정 작가
- 20 여기가 뜨는 이유1
세화씨문방구
- 22 여기가 뜨는 이유2
천금수산

안전 바닷물

- 24 베테랑을 만나다
완도운항관리센터 정세환 차장
- 28 해수호 토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
- 30 KOMSA 리포트
안전 운항을 책임지다
운항관리자 A to Z
- 32 현장에 가다
목포지사&목포운항관리센터
- 38 KOMSA 이슈1
202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KOMSA 미래세대 소통화합 워크숍
- 42 KOMSA 이슈2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 46 안전 가이드
안전하게 물놀이 하기
- 48 뉴스
- 49 네트워크
- 50 이벤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NS와 함께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기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삼오오
바다로 떠납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속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아무 이유 없이 떠나고 싶어서.

여름이라는 계절의 절정에
바다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 넓고, 푸른 마음으로.

어떤 말도 건네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여름날의 바다가 전하는 위로가요.

잘 왔다고, 그간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다고,
여기서는 마음 놓고 폭 쉬다 가라고.

올여름, 이 바다에서라면
잊고 지냈던 여유도, 웃음도
되찾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

눈부시게
빛나는
제주의 추억

여름 바다 이야기

글 정여울 작가



제주도의 바다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보드랍게 찰랑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무시무시한 기세로 덮쳐오는 파도. 날씨가 좋을 때는 에메랄드빛과 터키스블루가 섞인 오묘한 빛을 내다가도, 날씨가 흐려지면 마치 먹물을 흘뿌려 놓은 것처럼 우중충한 빛을 띠기도 한다. 4박 5일 제주 여행을 떠났다가 나흘 동안 비가 내리고 마지막 날 서울에 돌아올 때 그 제야 태양이 나를 약 올리듯 방싯거리며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발리나 코타키나발루 부럽지 않게 푸르디푸른 제주 바다를 떠올리다가 날씨가 안 좋을 때 여행을 떠나면 허탕을 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 변화무쌍하고 변덕이 죽 끓는 듯한 제주의 바다를 사랑한다. 해녀들이 직접 그 날 물질해 온 해산물로 요리해 주는 성게미역국이나 갈치국을 좋아하고, 언뜻 불친절한 듯하다가도 조금만 친해지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푸근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주는 제주 사람들의 사투리도 사랑한다.

오직 제주에만 있는 것들. 그런 소중한 존재들 중의 하나는 제주의 변화무쌍한 바다다. 하나의 섬에 이토록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이 존재한다니.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투명하게 빛나는 쇠소깍의 아름다움은 눈을 잃게 한다. 협재해변의 눈부신 푸르름과 핑크빛 저녁노을은 또 어떤가. 그런 아름다움은 오직 제주에만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한여름 제주의 각종 해산물 요리 등을 생각하면, 바다에서 이토록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다채로운 음식들을 하루 종일

(심지어 야간에도 배달하여) 먹을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 함덕해변의 장엄한 푸르름과 그 바다 걸을 병풍처럼 둘러싸며 굽이치는 서우봉의 완벽한 조화는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절경이다. 용머리해안의 가파르면서도 미로처럼 난해한 곡선은 ‘여기가 과연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국적이면서도 매혹적이기 이를 데 없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달한 듯한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용머리해안에는 존재한다.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의 절경 또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세화해변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바다를 향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있다. 크지 않은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영롱한 바다 빛깔과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카페들이 여행자들을 반겨준다. 김녕해변 또한 그 새하얀 모래들이 반짝이는 바다의 절경이 마치 걸으면서 수채화를 그리는 듯한 감동을 준다. 제주는 습도가 높아 육지보다 더 더울 때도 많지만, 바닷가에 다다르면 어느새 더위도 시름도 다 잊게 만드는 파도 소리와 바람이 우리를 반겨준다.

몇 년 전 여름, 동생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제주의 온갖 바다들이 지닌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바닷가 카페에서 글도 쓰고, 올레길도 걸으며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그 시간들은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할 정도로 소중한 다. 제주의 흠집을 데 없이 아름다운 바다는 가끔 위험하기도 하다. 중문색달해변에서 굽이치는 파도의 모습에 넋을

잃고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내 몸이 확 밀리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파도가 너울로 바뀌는 시간,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파도가 거세져서 수영은 위험하니 빨리 물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물 밖에서 산책만 하고 있던 나도 파도의 거대한 위력을 느꼈을 정도이니, 너울성 파도의 위력은 실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때론 평화롭고 때론 위협적이며, 때론 아름답고 때론 우울하기 이를 데 없는 어두운 풍경을 보여주는 바다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거대한 신비였다. 바다가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겸허한 깨달음의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온갖 번뇌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바다로 도망치면, 푸르게 펼쳐지는 광활한 해안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너의 고민은 이 바닷물에 떨어지면 한 방울의 잉크 같은 크기란다. 한 방울의 잉크가 바다 색깔을 바꾸진 못하잖아. 그러니 바다의 품에 안겨 너의 모든 시름을 잊으렴. 이곳에서는 너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단다.”

바다의 너른 품에 안겨 실컷 울고 나면 우리의 고민은 어느덧 처음보다는 훨씬 작게 축소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를 둘러싼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시간. 그럼으로써 ‘나’라는 존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풀어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시간이야말로 여행이 필요한 시간, 바다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빛나는 울릉도

Shining Ulleungdo Island

어쩔 이리도 반짝일까. 낮에도, 밤에도. 이곳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이 행운을 만끽할 수 있다면 머나먼 뱃길을 지나는 수고로움은 나중 일이다.
빛으로 가득했던 울릉도에 대한 소회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특히 초여름 시즌에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울릉도를 찾는 인파가 늘어난다고 한다.



생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누구에게나 섬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일상을 이어가는 생활 터전과 멀리 떨어져 자연 속에서 오롯이 쉴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싱싱한 해산물을 원 없이 맛볼 수 있어서일까. 사람들은 육지와는 다른 미지의 섬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로 치면 울릉도가 그런 곳이 아닐까. 다수의 매체에서 흔히 말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실제로 2022년 섬 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가보고 싶은 섬 2위에 울릉도가 오르기도 한 걸 보면, 꽤 많은 사람이 울릉도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울릉도행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가면, ‘가보고 싶은 섬 2위’에 올랐다는 것이 실감 난다. 육지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여름에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울릉도를 찾는 인파가 늘어난다고 한다.

울릉도는 묵호, 강릉, 후포, 포항 지역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 도착하는 선착장과 이용할 수 있는 배가 다르니 울릉도 계획을 세웠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요즘은 여행사나 KTX와 연계한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 자신이 없다면 이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초록빛 가득, 걷기 좋은 나리분지

망망대해를 달려 도착한 울릉도. 배에서의 오랜 시간을 이겨내고 도착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특히 울릉도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 날씨까지 화창하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여행이 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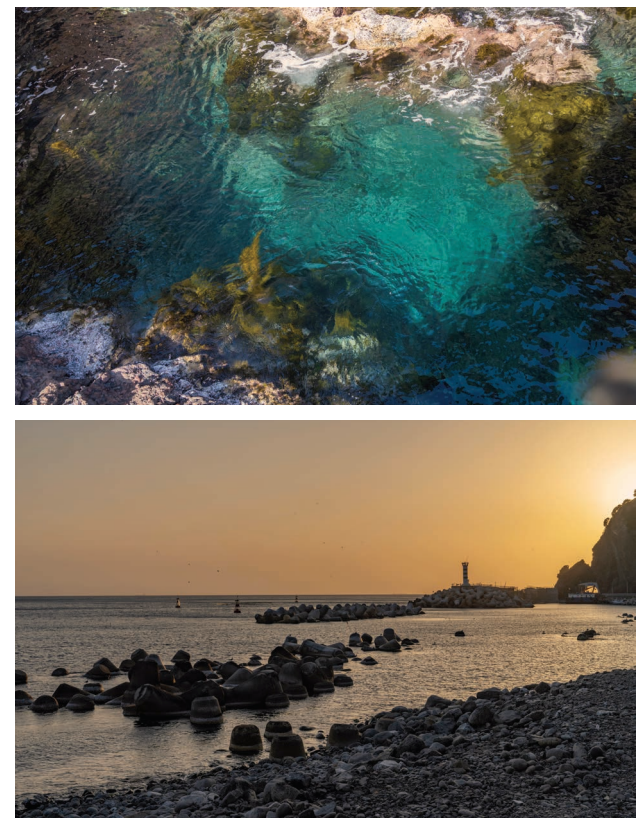
차 렌트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차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 “울릉도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동항 옆의 순환도로가 가장 이동하기 좋은 도로입니다”라던 렌트 기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울릉도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여행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몇 해 전, 순환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좁고 가파른 곳이 많아 운전엔 미숙한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그렇게 조심조심 40여 분을 달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바다를 원 없이 보며 나리분지로 갔다. ‘바다’만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라고 해서 궁금했기 때문이다.

과거 화산폭발로 생긴 분화구가, 퇴적물이 운반되고 쌓이며 호수가 되고 물이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데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언뜻 보면 작은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진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취향에 따라서 트레킹, 캠핑, 전망대 구경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보통은 트레킹을 많이 한다고. 조금은 쉽게 나리분지를 누리고 싶다면, 나리분지 숲길로 가볼 것. 경사 없이 걷기 좋은 길이고, 초록빛 나무로 가득한 숲길을 지나며 볼 수 있는 꽃과 식물들에 일순간 매료되고 마니까. 길을 잘 모르겠다면 초입에서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친절하길 안내는 물론이거니와 사진 찍기 좋은 나리분지만의 명소도 알려준다. 숲해설가의 추천으로 묘한 매력에 있는 알봉분지까지 걸었다. 알봉분지는 이른 아침에 오면 안개가 자욱이 낀 모습이 일품이고, 한밤중에 오면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그 모습이 정말 예쁘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짚은 눈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 좋은 계절의 낮도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신비로운 안개와 반짝이는 별까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행남해안산책로에서 누리는 푸른빛 울릉도

나리분지에서의 시간이 초록빛이었다면, 이제는 푸른빛으로 시간을 채울 차례. 울릉도는 특히 해안산책로가 많고 잘 되어있어 바다를 지척에 두고 즐기는 게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행남해안산책로. 도동항 방파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화산작용에 의해 생겨난 섬답게 현무암이나 안산암 등의 바위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부딪히는 파도와 푸른 바다는 여행의 고단함을 잊을 만큼 시원하고, 강렬하다.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바다 위의 다리, 파도와 바람에 깎여 위엄을 자랑하는 동굴은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 사실 어느 곳에 멈춰서도 배경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사진 포인트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행남등대에 올라 울릉도의 절경을 보고 싶었으나, 공사로 인해 중간에서 돌아와야 했지만 짧은 구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산책길이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행남해안산책로에서 20여 분가량 소요되는 남서일몰전망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 붉게 물들어 가는 일몰이 장관이다.

울릉도의 또 다른 재미



나리상회

나리분지의 명소다. 작은 슈퍼라고 무시하지 말 것. 아담하고 정겨운 외관에 발길이 절로 멈춰진다. 게다가 귀촌한 백패커 사장님에게 이곳의 깨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장소나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랄까.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길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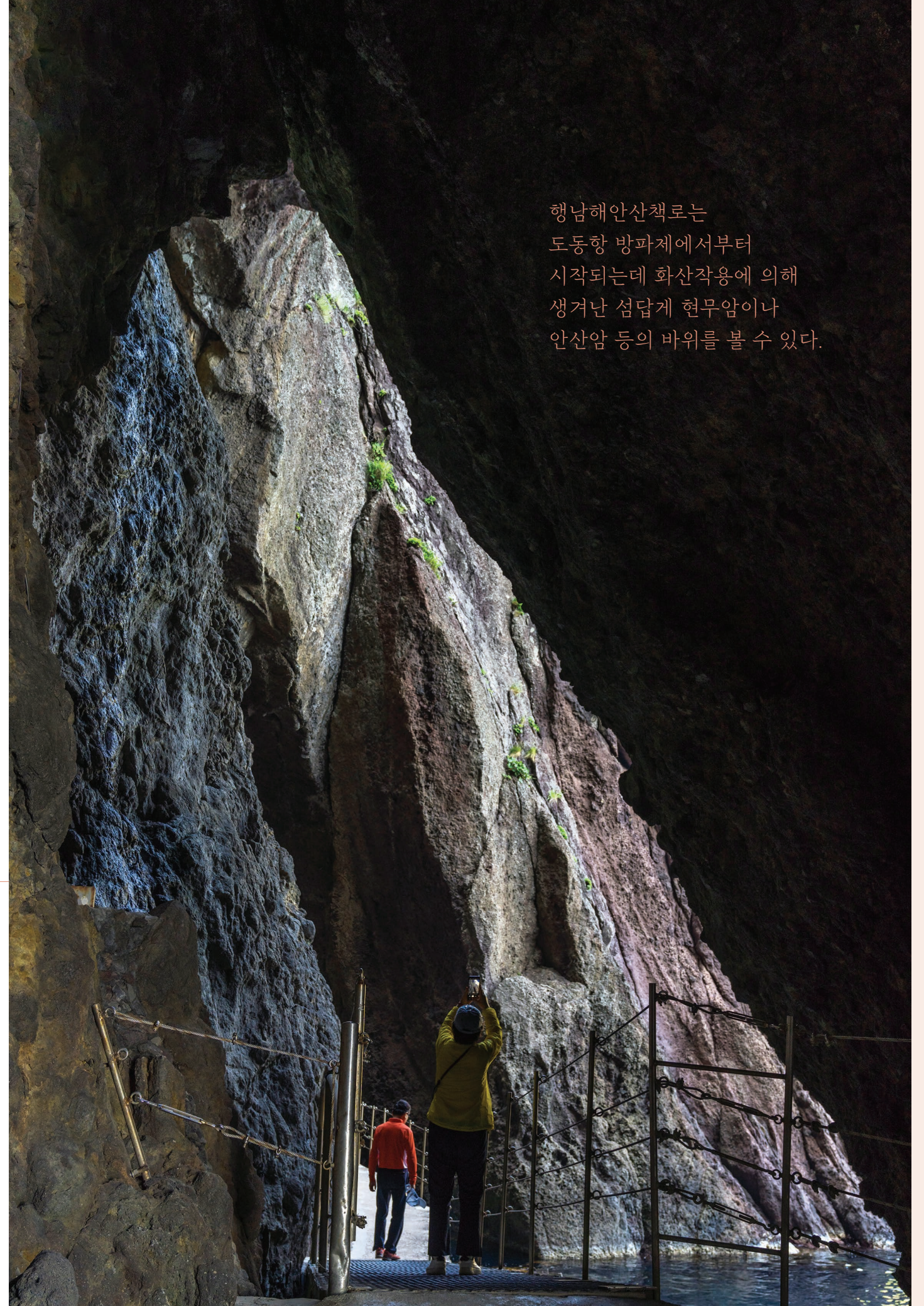


삼선암 스노클링

정확히 말하면 관음도와 삼선암 사이 도로 바깥으로 있는 곳. 해변이나 사다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스노클링 스팟이다. 삼선암과 관음도를 통하는 연도교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행남해안산책로는
도동항 방파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화산작용에 의해
생겨난 섬답게 현무암이나
안산암 등의 바위를 볼 수 있다.



울릉도의 중심,



저동 어촌계

울릉도에서 가장 큰 저동항. 저동 어촌계는 저동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때는 울릉도에서 가장 많은 어촌계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원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100여 명뿐이다. 대부분의 어촌계원이 독도 근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기 때문에 협동 양식과 마을 어업으로 조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징어마저 잘 잡히지 않아, 어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중국 배들이 싹쓸이하고, 육지 배들이 그물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저동 어촌계원들은 왕복 10시간 남짓 걸리는 독도까지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동 어촌계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관광객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대하며, '저동 인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다른 곳에 갔다가 저동으로 넘어오면 집집마다 친절하고, 음식도 맛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동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관광객들을 대하는 어촌계원들. 부디 그들의 진심이 통해서 저동 어촌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Interview



저동 어촌계 박기철 계장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울릉도 토박이입니다. 저동어촌계 계장을 맡고 있어요. 전에는 저도 오징어배를 가지고 조업을 나가곤 했었는데요.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배를 팔고 현재는 공업사를 운영 중입니다. 어촌계장으로서, 울릉도의 특산물인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Q2. 울릉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자연환경이죠.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이것 때문에 먼 길을 달려 다들 울릉도에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인심도 좋습니다. 특히 저동은 울릉도에서도 가장 큰 동네예요. 다른 곳보다 여유롭게 관광하실 수 있고, 맛있는 식당도 많답니다.

Q3.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울릉도를 찾아주셔서 울릉도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오신 만큼, 울릉도를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울릉도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자차를 가지고 입항하다 보니 안 좋은 도로 사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사고 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안전 운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릉어민식당(회) 신정철 대표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7살에 울릉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횃집 운영 중입니다. 어머니 때부터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전통 있는 횃집입니다. 울릉도에서 대를 이어서 횃집을 운영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맛과 질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Q2. 울릉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자연환경이 좋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맛있는 해산물이 많다는 것도 자랑인데요. 예전에는 오징어 같은 각종 해산물이 차고 넘치게 많이 잡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이 커요.

Q3.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오래 머물고, 좋은 것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물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류비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어민들은 조업이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신 좋은 인심과 맛은 보장해 드릴 테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쪽 바다를 ————— 그리는 ————— 나날들



▲<논골담길> 2021, digital drawing 동해시 묵호항 논골담길. 오징어잡이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다.

이현정 작가

이현정 작가는 자신을 '15년 차 강릉 여행자'라고 소개하곤 한다. 강릉에 터를 잡고 꽤 오랜 시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강릉을 바라봐서라고. 그래서일까. 그녀가 그린 강릉 그리고 강원도의 바다는 늘 새롭고, 아름답다.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동쪽 바다만이 간직한 아름다움을 오랜 여행자의 시선으로 기어코 발견해 낸 것이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장소 강릉 무명

바닷가와의 인연

포항이 고향이었던 그녀는 사실 바다에 대한 로망이 딱히 없었다. 너무 익숙해서였을까. 그녀에게는 사실 강릉도 마찬가지였다고. “강릉에 살기 전까지는 사실 매력을 잘 몰랐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도 딱히 기대감이 없었죠.”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시작한 강릉 생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릉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녀의 작품에 주 소재로 쓸 만큼 강릉의 풍경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15년 차 강릉 여행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15년째 이곳에 살고 있지만, 가끔 강릉의 풍경들을 마주하면, 방금 여행 온 사람처럼 설레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다가오는 곳도 많고요. 지내면 지낼수록 매력적인 곳입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강릉의 풍경들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림에 담아내며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최근에는 강릉과 양양의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하기도 했고, 한국만화박물관 기획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쪽 바다에서 만나다

그 시작은 2017년 즈음이었다. 육아로 10여 년간 그림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다가 '2017 양양 연어축제' 야외 전시를 계기로 다시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연어가 돋보이는 그녀의 작품 <남해항>은 그녀를 다시 그림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이 그림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운이 좋게 작년 롯데카드 모바일 앱 시작 화면에 이 그림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작품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올해 3~4월에는 한 달간, 원주에서 <동쪽 바다가 건네는 말>이라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강릉을 포함한 동쪽 바다를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며,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정취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작업한 작품들을 ‘바다’라는 주제에 맞게 큐레이션 한 전시라, 다른 전시보다는 어렵지 않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전시를 보고 ‘강릉에 와보고 싶다’라고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다 정취를 느낄 수 없는 도시에 사는 분들과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강릉이 취향이라서요

그녀가 그리는 강릉 그리고 강원도의 풍경에는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릉의 바다, 카페, 오래된 동네, 골목….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어느 날, 제가 그린 동네의 집이 갑자기 사라진 걸 발견했을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못 보느구나, 더 잘 그려 놓을걸’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동네 산책을 다니고, 그림도 많이 그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바쁜 엄마여서, 아내여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단다. 그만큼 강릉과 강원도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일에 진심인 그녀의 소신이 느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사느라 일상의 사소한 변화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절이 오고 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예요.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가끔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피고, 지며 우리를 기다려 주는 자연을 보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담긴 풍경도 좋고요. 저도 누군가가 제 그림을 보며 심을 얻을 수 있도록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강릉의 풍경들을 꾸준히 그려나가려고요.” 그림 작업뿐만 아니라 강릉문화예술재단 연계 예술프로그램 개발, 클래스 진행, 신간 출간 등.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많아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녀의 강릉 여행은 더 다채로워질 예정이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들꽃처럼, 그녀가 오래 머물고 바라보고, 담아내는 강릉의 면면들이 어쩐지 더 기대가 된다. 

1



2



3



4



1, 5 이현정 작가는 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한다. 그녀의 작업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릉 카페 무명.

2 <다섯 개의 달, 찻잔에 비친달> 2021, digital painting 경포대에 뜨는 다섯 개의 달 스토리를 그린 시리즈 중 하나. 원래는 술잔에 비친 달이지만, 커피 도시 강릉을 모티브로 찻잔에 비친 달로 바꾸었다. 여름날의 경포호는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3 <남해항> 2017, digital painting 동해안의 미항 중 하나인 양양의 남해항. 남해항 주변의 빨간 지붕들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양양의 남대천으로 가을에 화귀하는 연어들을 남해항에 드나드는 배로 표현하였다.

4 <남대천, 안식처> 2022, digital painting 고향 집에 가면 엄마의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엄마의 체취와 엄마의 화장품 그리고 엄마가 쓰는 섬유유연제와 자주 하는 음식 냄새들과 엄마를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이 한꺼번에 뒤엉켜 화학 반응하여 만들어 낸,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리움의 향이다. 이 그리움의 향이 채워지면 작가에겐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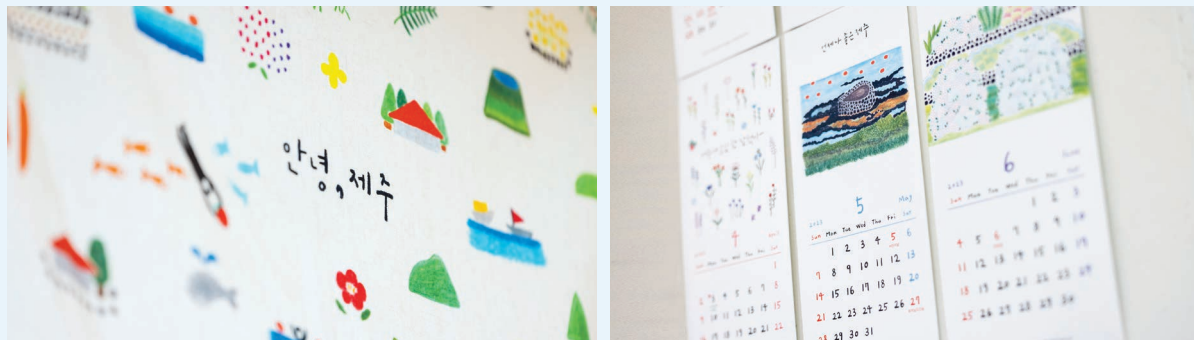
여기가 뜨는 이유1



세화Sea에서 만난 제주 풍경

세화씨문방구

당신의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하나쯤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곳이 제주라면 더욱. 아기자기한 손그림으로 제주 풍경을 담아낸 곳을 찾았다.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세화해변 앞에서.
글 박영화 / 사진 이승현



손그림으로 담아낸 제주 감성

제주 동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화해변. 그 아름다운 바다 근처에 세화씨문방구가 있다. 돌계단에 오르면 보이는 세화씨문방구는 주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진아 작가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소품숍이다. 이진아 작가는 처음으로 한 제주 여행에서 세화해변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세화해변이 보이는 이곳에 오랜 꿈이었던 문방구를 열게 되었다. 2018년 겨울에 문을 연 이후 점점 SNS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라 손님이 몰릴까봐 서둘러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름은 삼색이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단다. 세화씨문방구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과 문구류라는 것. 이진아 작가가 직접 그리고 제품을 의뢰해 제작했다. 연필, 노트, 메모지, 엽서, 달력, 마스크테이프, 그림책, 안경 닙이 등에 바다, 돌담, 돌하르방, 굴, 해녀 등 제주 풍경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다. 예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곳이다.

세화씨문방구

- 📍 제주도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50-1
- 🕒 월~토 11:00~18:00(수요일은 17시까지), 매주 일요일 휴무
- ☎ 0507-1423-7883
- 🌐 <https://www.instagram.com/sehwasea.munbanggu/>

바다가 보이는 문방구

세화씨문방구를 찾다면 꼭 서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세화해변이 보이는 창 앞이다. 큰 창을 통해 보이는 세화해변은 마치 액자 프레임에 바다의 영상을 담아내거라도 한 듯 특별한 풍경을 자아낸다. 그리고 또 한곳. 바로 한편에 마련된 엽서 코너다. 엽서 한 장 한 장에 담긴 제주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매년 다른 제주 풍경을 그려서 제작하기 때문에 어느 해도 엽서가 갈지 않아, 새로운 엽서를 구입하려는 단골손님도 많다. 진열대의 모양도 특이한데, 한라산과 제주 오름을 형상화해 특별히 제작했다. 만약 제주에서 한곳의 소품숍만 들를 수 있다면 세화씨문방구를 추천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장의 엽서라도 구입하자. 두고두고 제주 여행의 감동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



울릉도까지 가서 독도새우 왜 안 먹어요? 천금수산



육지에서 머나먼 섬 울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릉도에 가는 이유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제철 맛은 상상한 해산물이 가득하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새우다.
울릉도에서 독도새우가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로컬 분위기 물씬 풍기는 그 가게로 갔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독도에 살아 독도새우니?

들어는 봤는가. 독도새우. 울릉도와 독도 근해, 넓게는 동해안 일대에서 잡히는 새우를 독도새우라고 부른다. 우리가 횡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단새우’도 울릉도, 독도 바다에서 잡히지만 독도새우라고 하지 않는다. 독도새우라는 명칭에는 그만큼 귀하고 비싼 새우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다는 소리다. 품종은 세 가지. 도화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꽃새우), 가시배새우(닭새우)다. 세 종류의 새우는 맛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대하와 비교했을 때, 달고 살이 단단해 껌쫄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입에 딱 넣어보면 제아무리 미각이 둔한 사람일지라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봄부터 가을까지 잡을 수 있는데 5~6월 그 즈음이 가장 맛있다. 1980~90년대만 해도 하루 300kg씩 잡히기도 했지만, 요즘엔 30kg만 잡아도 “밥값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다.



진짜 독도새우가 있어요

“울릉도에 가면 독도새우를 꼭 먹어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먹거리 독도새우. 울릉도에서도 가장 크다는 저동항에 독도새우 맛집이 있다. 바로 천금수산이다. ‘천금회수산’이라는 간판을 찾으면 된다. 화려한 간판만큼 맛도 화려하니 염려는 금물. 이곳이 독도새우로 유명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트럼프 미국 前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문했을 때 만찬으로 독도새우가 나왔는데, 먹어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고. 그때 만찬으로 나온 독도새우를 잡은 선주가 직접 운영해서 더 유명세를 탔다. 보통 선주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 독도새우가 쉽게 잡히지 않을 때는 2주 정도 머물러 있다가 오기도 한다고. 그만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서인지, 판매되는 양이 한정되어 부지런한食客들만 맛볼 수 있다. 천금수산에서 독도새우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준다. 손질된 새우는 회로 먹으면 되고, 머리는 튀김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독도새우와 대게를 함께 넣어 끓인 새게탕도 이 집의 별미. 독도새우는 비린맛 없이 쫄깃, 달달하고 튀김은 갓 튀겨 바삭바삭하다. 천금수산은 울릉도를 찾은 여행자들을 위해,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울릉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니,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천금수산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6
- 🕒 매일 11:00~21:30(20:30분 라스트 오더)
- 📞 포장 가능



목포항과 더불어 남해안 해상교통의 거점 항만으로 꼽히는 완도항.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여객선들이 서서히 움직인다. 배가 무사히 기항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이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완도운항관리센터 정세환 차장이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완도항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는 그는 바다수호자로 불리는 운항관리자다.
글 박영화 / 사진 정우철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완도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정세환 차장



완도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정세환 차장



입사일

2015년 7월 8일(7년 11개월)

관리 선박 수

13항로 23척

1항로 3척(완도~제주)

신조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Q. 운항관리자가 된 계기가 있나요?

제 고향이 고흥인데요. 고흥 중에서도 녹동항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고동 소리도 자주 듣고, 주변 섬으로 가기 위해 차도선도 많이 타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바다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었어요.

Q. 운항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운항관리자는 전국 12개 운항관리 센터에서 「해운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출항부터 운항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시나요?

출항 전 안전점검은 여객선 크기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큰 배의 경우 점검표에 따라 한 시간가량 실시합니다. 여객선 내 위험물이 선적되어 있는지,

여객선 승선정원이나 화물의 적재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구명기구와 소화설비 즉시 사용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 선장님과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지정된 운항항로로 운항하는지 등 실시간 여객선 운항동태를 VMS를 통해 확인하고, 지능형CCTV를 통한 기항지 여객선 출입항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무선설비(VHF)를 통한 각 기항지 여객선 출입항 보고를 수리하고, 운항동태에 이상이 있을 시 여객선을 역호출하기도 합니다. 여객선 운항 중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를 파악해 관계기관(해양수산부, 해양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Q. 운항관리자만의 직업병이 있나요?

여객선 출항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운항관리자는 이른 새벽 기상 관련 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해양 기상에 따라 여객선 출항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앱을 통해서 완도권 기상을 파악했는데요. 모든 해역의 날씨가 쾌청하고 좋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되는데, 가끔 안개로 인한 기상이 나쁘면 여객선 운항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Q. 운항관리업무 시 완도 지역만의 특색이 있나요?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항관리업무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항지 간 여객선 운항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짧다 보니 여객선 점검 업무 수행 횟수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양식장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여객선 운항 중 양식장 접촉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각별히 안전관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Q. 완도운항관리센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완도운항관리센터의 인원은 총 18명으로, 김록주 센터장님을 비롯해 11명이 근무 중이고, 4개의 파견지 사무소에도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무자 대부분이 완도가 연고지가 아니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센터장님의 배려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특성상 혼자 잘해서는 절대로 해양사고 예방 등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속된 센터 팀원 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Q. 운항관리자는 어떤 고충이 있나요?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운항통제 결정에 대해서 "날씨가 좋은데 왜 여객선을 통제했냐" 또는 "통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등의 민원전화를 받고 합니다.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경력이 부족했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저도 같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도 여객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여객선 운항결정에 대한 관련 기준과 해양 기상 상황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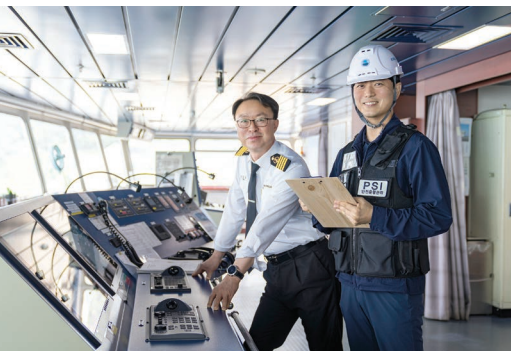
Q. 운항관리자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얼마 전에 청산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은 여객선이 주 교통수단인데요. 그동안 해양안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해 보고 VR기기로 여객선 화재 발생 시 탈출 등을 체험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감동했습니다.

Q. 전국에서 활약 중인 운항관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객선만큼 운항관리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해가 짧아 여객선 첫 출항 시 어둠 속에서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차량 물동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차도선 차량감판에 차량이 정말 많이 선적해 있는데요. 이때 차량 고박장치, 라싱밴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 업무 전에는 개인별 안전장구(안전화, 랜턴, 장갑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배
터
랑
을

무
관
후

< 안전한 항해, 미래 해양인을 꿈꾼다면? >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로!**

가상현실기법을 활용해 선박운항자 시각에서 해양 현실을 재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위치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다.
 글 편집실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Q. 선박조종 시뮬레이터가 뭔가요?

선박이 바다에서 이동하는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 현실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선박조종에 대한 교육, 선박이 이동할 때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여부,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교육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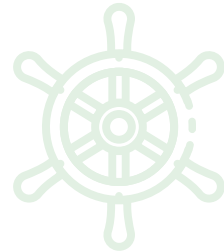
Q. KOMSA에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다고요.

네, 세종시에 위치한 본사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문을 연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는 선박의 방향 조정, 선박의 전진과 후진 등 실제 선박을 90% 이상 재현해 여러 가지 선박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어요. KOMSA는 이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 검토, 검증과 해양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원인 조사에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Q.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는 총 4개의 선박 조종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싣는 대형 무역 선박의 조종실, 바다에서 공사를 하거나 다른 선박을 밀고 당기는 선박의 조종실, 물고기를 잡는 어선의 조종실, 사람을 싣는 여객선의 조종실이 있습니다. 선교 4개는 모두 형태와 기능이 다릅니다. 조종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선박을 방문하여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탑재하였습니다.



Q. 주요 장비와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선교마다 공통으로 설치된 장비는 바다 위에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 바다 위의 지도인 전자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신장비, 배를 움직이는 엔진장비, 배의 방향을 정하는 조타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선박이 항구를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전자 내비게이션 장비도 갖췄으며, 자동으로 다른 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식별장치(AIS)를 탑재했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선박의 장비도 작고 조작하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Q.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센터의 기능이 궁금해요.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는 선박조종 교육훈련, 선박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평가, 해양사고 비상 대응, 항해 장비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Q. 다양한 DB가 구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바다를 보여주는 바다 데이터와 선박을 보여주는 선박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바다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무역항(부산, 인천, 목포, 광양, 울산 등)을 유사하게 만들었고, 선박 데이터는 배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선박이 있습니다.



Q.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예정인가요?

일반인이 선박을 실제로 타보고 조종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박조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선박조종 교육을 하고, 배를 실제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과 거리가 먼 세종시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해양인을 위한 꿈의 항해!
KOMSA 선박운항 체험 및 해운분야 진로탐색 교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운항 및 해운분야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직업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공단 선박검사원, 운항관리자, 연구원 등의 직업을 소개하고 공단이 보유한 중대형 선박, 여객선, 작업선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 운항을 책임지다

운항관리자 A to Z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선원·종사자 교육 및 실시간 안전 운항 모니터링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심에는 운항관리자가 있다. 국민을 위해 안전한 바닷길을 제공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글 편집실 /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KOMSA 운항관리센터 수 5월 기준

12 센터 **40** 개 파견지



📍 KOMSA 운항관리자 수 5월 기준

148 명

운항관리자 147명 + 통신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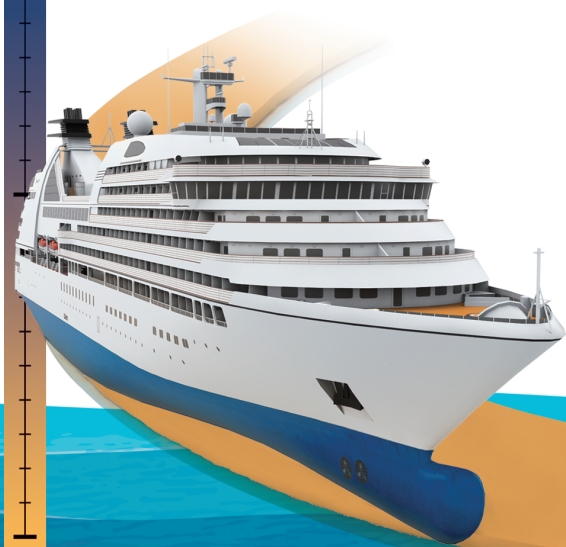
운항관리 여객선 수 5월 4일 기준

102 항로

154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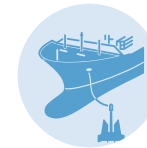
센터별 운항 현황 5월 4일 기준

운항관리센터	항로(개)	여객선(척)
부산	1	0
인천	14	19
동해	2	2
보령	7	8
군산	5	6
목포	26	42
여수	8	10
완도	13	23
포항	4	6
통영	13	22
제주	4	10
고흥	5	6
합계	102	154



🚢 운항관리자 자격 요건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1항에 따라서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 경력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이 요구됩니다.



🚢 운항상황센터: **365** 일
24 시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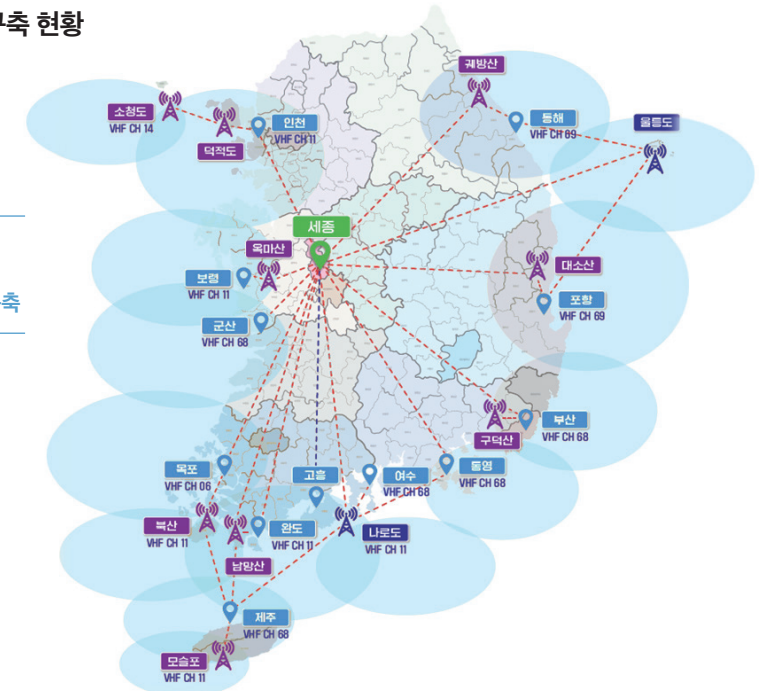
해안무선국 무선통신설비 구축 현황

교신정보 시스템(VHF 통신망)

전국 **11** 개 센터

8 개 중계소 연계 해안무선국 구축

- 📡 VHF, SSB 중계소
- 📡 VHF 중계소
- 📍 본사
- 📍 본부



지능형 CCTV 운영 현황 5월 기준

4 개 센터 **23** 개소 **34** 기

목포지사



목포운항
관리센터



목표는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다는 목포. 그 안에서 KOMSA인으로 살아가기란, 24시간이 모자라다.
하지만 목포의 KOMSA인들은 선박 검사, 민원 해결, 안전 점검 등 정신없는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들이 웃을 수 있는 건 아마도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끈끈한 동료애가 밑바탕 되었으리라.
가장 바쁘다는 KOMSA의 여름에 목포지사&목포운항관리센터 사람들의 일과를 따라가 봤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이토록 끈끈한 동료애라니

목포지사는 목포시를 포함해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전라남도 소재 3개 시와 10개 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에 100여 개가 넘는 조선소가 존재해 검사원들에게는 다양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어선 건조의 메카이기도 하다. “목포지사는 전국 KOMSA 지사 중에 검사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만큼 소통하기 어려울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라남도 특유의 지역성 덕분인지 동료들끼리 끈끈합니다.” 실제로 목포지사는 동료애를 다지기 위해 선·후배 검사원 간 다양한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있다고.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물론이고 배드민턴, 크로스핏 등 땀 흘리는 운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중이다. 이러한 소통 시간은 업무를 할 때 큰 힘이 된다. 검사하는 선박만 약 12,000척이 넘어 업무 강도가 높기도 하지만, 신입 직원들은 오히려 일을 배울 수 있어 즐겁다고 이야기한다.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비상할 목포지사

목포지사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기존 사무실을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로 이전해 새 출발을 알렸기 때문. 늘 타 기관 건물에서 더부살이해 야 했던 직원들에게는 이만한 희소식이 없는 셈이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로 오고 나서 좋은 점이 많아요. 어민들도 직접 배를 가지고 와서 인근에다 배를 대고 검사를 할 수 있고요. VR·AR 등의 체험관에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가능합니다. 탈의실, 샤워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의 편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죠. 직원들이 새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다수의 민원과 예기치 못한 해양 사고로 힘든 날들도 있었다. 힘든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다독여 주는 동료들 덕분이라고. 이토록 끈끈한 동료애를 원동력으로 목포지사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관할 지역 및 현장 안전사고 ZERO’라는 목표.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이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나아갈 목포지사의 이유 있는 비상(飛上)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환상의 팀워크 목포운항관리센터

하루를 시작하기에 이른 시간인 7시. 목포운항관리센터의 운항관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빠 움직인다. 전국 여객선 수송량의 약 25%를 담당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 “목포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섬이 규모가 커서 수산물보다 농산물의 수송도 많죠. 이것은 곧 큰 차량(25톤)의 이동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박 및 화물 적재에 대한 업무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담당하는 항로와 척수가 많고, 5개의 파견지에서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직원 간의 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포운항관리센터는 4개의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업무를 진행하며 최고의 합을 자랑한다. “가끔 신입 직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각 팀의 팀장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수습에 나섭니다. 실시간 소통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안전 운항이라는 사명감으로!

목포운항관리센터의 팀워크는 가장 바쁜 시기인 여름철에 빛을 발한다. 휴가철이 있는 여름에는 배 이용객이 많아지는 데, 이럴 때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재가 풀리고, 휴가철이 되면서 인파가 몰리고 있어요. 이용객들이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객실, 조타실, 기계실 등 안전 점검을 더욱 꼼꼼하게 합니다. 특히 차량 선적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차량이 몰리는데요. 이럴 때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듯 안전을 향한 목포운항관리센터의 진심은 유의미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원활한 운항관리로 대외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다. “우리 센터 직원 5명이나 포상을 받았어요. 지역 군수, 해경 등 유관 기관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목포운항관리센터의 관리 덕분에 해양 사고와 민원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목포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안전한 운항관리’라는 굳은 심지를 꺾지 않을 계획이다. 굵은 날씨, 업무량 등으로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바다에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 뜨겁게 타오르는 이들의 사명감이 라면 올여름, 바다의 안전은 이상 無다. 🌊



목포를 빛내는 KOMSA인을 위한 Special Award

본 어워드는 '코너 속의 코너'로 목포지사와목포운항관리센터 직원 자체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목포를 빛낸 KOMSA인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일 잘하는 직원은?

GIFT 뜨거운 태양에도 굶하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세요~! 선크림&풋크림

목포지사 정명섭 과장

곰처럼, 소처럼 묵묵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프로 검사 업무를 할 때도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인다고. 게다가 고객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까지 갖춘 인재다.

목포운항관리센터 이명륜 주원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점검이 일정 조정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어려움이 많지만 묵묵히 그리고 별 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일 잘하는 직원'의 영예를 안았다.

친화력 갑! 핵인싸 직원은?

GIFT 많은 사람 만나려면 피부와 간 보호는 필수! 마스크팩&숙취해소제

목포지사 나승중 대리

길·까·빠·빠 무시하고 만사 끼어들고 보는 목포지사 미당발. 하지만 동료들의 모든 경조사를 자기 일처럼 함께하는 마인드를 갖춰 미워하는 사람이 없단다. 이 정도면 핵인싸 인정!

목포운항관리센터 강광희 주원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스마일 맨. 민원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직원 행사가 있을 때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소식통 역할을 해 목포운항관리센터 내 핵인싸로 선정되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현장 속으로!

목포지사는 건조 선박이 많은 게 특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박검사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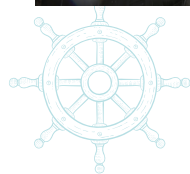
안전 장비 착용 완료!
점검 장비 준비 완료!

예리하고 꼼꼼하게 선박검사에 임하는
목포지사 직원들!



선박이 기울어졌는지,
두께는 적당한지
경도와 두께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장비를 이용해
스마트하게!



이제 선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기관실!

문제없는지 check! check!
열화상카메라로
온도 check! check!

목포지사의 선박검사원들은
검사 시 더블체크를 진행하며
완성도를 높입니다! 박수~



기관실 내부 안전 점검 중!
시끄러운 기계음과
뜨거운 온도는 개의치 않아요~

객실 내 비치된 구명설비
체크도 필수!

안전 스티커를 떼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선장님과 최종 점검!

선장님 오늘도
안전 항해 하세요~



배 위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대형 차량이
제대로 결박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차량이 움직이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는 것은
필수입니다!





○
●
202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KOMSA 미래세대 소통화합 워크숍

미래의 KOMSA를 이끌 세대가 천안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화합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전국 본사 및 각 지사/센터의 입사 5년 차 미만,
대리급 이하 직원 85명이 하나 되었던 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영상 최의인

성과는! 지피지기!
소통은! 역지사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1일~12일, 천안에 위치한 상록호텔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함성소리로 가득 찼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화합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이다.

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인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지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다.

“자 팀별로 앉으셨죠? 팀은 사전에 관심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눴어요. 관심사가 같은 분들이 한 팀인데요. 팀마다 관심사가 전혀 다른 라이어가 숨어있으니 라이어도 찾아보세요.”

즐거운 체육활동 시간!

본격적인 워밍업 시간. 게임을 통해 선정된 팀장들과 팀원들은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워크숍의 구호인 '성과는 지피지기, 소통은 역지사지'를 연습한 후 체육활동이 진행될 소강당으로 이동했다.

팀별로 조끼를 나눠 입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체육활동. 파도를 피해라, 바나나보트 릴레이, 대형 타이어 릴레이, 2인 3각 릴레이, 줄다리기 등 비교적 쉬운 경기부터 팀원 간의 단합이 중요한 경기까지. 팀워크를 다지는 경기를 한 덕분일까. 직원들은 세미나실에서 데면데면했던 모습과는 달리 부쩍 가까워진 모습이였다. 우승을 향해 달리는 동료에게는 목이 터져라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탈락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건네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참가자는 “지사와 센터, 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던 시간이었다”라며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워크숍 현장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진심토크

한바탕 뛰고 난 후 방에 짐을 풀고, 다시 세미나실. 직원들은 첫째 날의 대미를 장식할 김준석 이사장과의 대화 시간을 위해 웅기종기 앉았다. 자칫 딱딱해질 수도 있었던 시간은 김준석 이사장의 즉흥 퀴즈를 통한 스타벅스 상품권 선물로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 후 김준석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평균 나이가 32.9세라고 들었어요. MZ 세대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토론도 하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이사장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직원들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열정과 진심, 웃음이 가득했던 워크숍의 첫째 날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시간,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만 점수를 가져갈 수 없어, 팀의 화합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박 하루를 함께해서인지 이제 각 팀에게서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시간. 서로 다른 직렬, 근무지라는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마련된 시간이다. 이 시간에 참여한 직원은 “이번 워크숍이 아니었다면 직장 생활하는 내내 몰랐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서로의 직렬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간 짝 찬 프로그램으로 함께한 KOMSA 직원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분명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이다. 



KOMSA



66 ——— 99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토론도 하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ORKSHOP



MINI INTERVIEW



통영운항관리센터
임성환 대리

체육활동이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 본 사이지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우승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라고 다짐하며 활동에 임했는데요. 이 마음가짐 덕분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우승을 이끈 팀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포운항관리센터
김미진 주임

1박 2일 동안 천안 아산에서 직원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함께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반가웠습니다.

“서남권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박검사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어업인, 여객선 종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고밀도 폴리에틸렌 용접 교육 등이 가능한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역시 그 일환이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해양 인프라 중심에 들어선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목포 죽교동은 해양수산 관련 학계,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위치한 해양수산 클러스터의 주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인프라를 갖춘 이곳에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게 되었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중소형 선박의 정밀검사·원격검사가 이루어지고, 선박생애 점검 및 이력관리 등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VR,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한 해양안전 종합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 이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보이는 두 번째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KOMSA 임직원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 어업인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중소형 선박의
정밀검사·원격검사가
이루어지고, 선박생애 점검 및
이력관리 등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모두의 축하 속에
힘차게 출발!

지난 6월 22일, 목포 죽교동에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과 어업인이 모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을 빛내기 위해서. 준공식에는 KOMSA 김준석 이사장, 박홍률 목포시장,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정문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한 어민회와 조선소,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내빈들의 소개가 끝나고,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에 힘쓴 한국해양교통안전 스마트선박안전TF 김몽주 팀장이 준공까지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 후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준석 이사장은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까지 함께 힘써준 협력 기관들에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축전이 빠질 수 없는 법. 자리에 참석한 대외 인사들은 축사를 낭독하며 축하를 전했고, 참석하지 못한 인사들은 영상으로 축전을 보내며 마음을 대신했다. 드디어 준공식의 대미를 장식할 테이프 커팅식 차례가 돌아왔다. 행사장에 앉아있던 내빈들은 장소 옆으로 이동해 테이프를 자르며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선박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향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둘러보기

주요 시설

선박 정밀검사실, 선박 원격검사실, 유체성능 분석실, 가상현실(VR) 체험장, 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 해양안전문화체험관, 교육장, 다목적 강당 등

주요 기능



서남권 바다의 안전을 위해

테이프 커팅식으로 공식적인 준공식 행사는 모두 끝이 났다. 하지만 김준석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핵심 장소로 이동해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장소는 원격검사실. 원격검사실에서는 현장 방문검사가 어려운 지역 또는 선박 설비 등 긴급한 검사를 대상으로 원격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소요 시간 단축 및 수검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원격검사실 투어가 끝나고 센터 2층에 마련된 해양안전문화 체험관 시설 투어가 진행됐다. 이곳에는 VR체험존, 소방체험존, 심폐소생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종사자와 일반인을 위한 비상상황 대응 행동요령과 안전 운항을 위한 출항 전 준비사항 등 해양안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념사에서 “목포의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선박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향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던 김준석 이사장의 말처럼,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춘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물 좋은 여름은 안전해야 더 좋다

안전하게 물놀이 하기

바야흐로 물놀이의 계절, 여름이 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맘껏 즐기지 못했던 탓에 더 소중한기만 하다. 소중한 이 여름날, 더 재밌게 바닷가 물놀이를 즐기려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바로 물놀이 안전 수칙! 모두 기억하고, 지켜서 즐거움만 가득한 여름날이 되기를~!
글 최선주 / 자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예상치 못한 파도가 왔다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은 꽤 짜릿하다. 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먼저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본으로 수영할 것. 긴장하면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으로 내밀고 있어야 하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는 오히려 마시는 쪽을 택하는 것도 방법.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거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얇은 곳이니 참고할 것.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다면?

경련은 차가운 물에서 피로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경련을 자주 겪었을 것. 그만큼 경련은 수영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단,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하자. 당황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나니까. 경련 부위를 살살 주물러 풀어주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했을 때는 위경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위경련은 긴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구급 요청이 필요하다.

알아 두면 분명히 쓸 데 있는 구명조끼 착용법



갯벌에서 사고가 났다면?

갯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갯벌에는 보통 어민들이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다. 이 진입로를 이용하되, 진입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말자. 또한 맨발로 들어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갯벌에는 어패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들어가면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 갯벌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는 갯벌의 조류 때문에 생긴 물결 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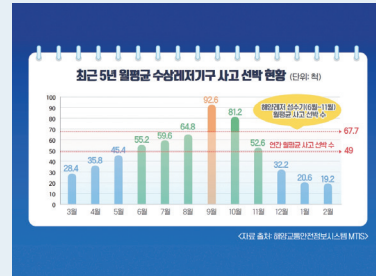


보트를 탔을 때는?

보트는 여름에 특히 많이 즐기는 물놀이 중 하나다. 보트를 타고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달릴 때는 답답한 마음이 뚫리는 기분이다. 보통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 혹시 보트를 타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면,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보트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뒤쪽으로 돌아와 몸을 숙구친 후 상체부터 올라놓는다.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물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NEWS

Summer



1

친구야, 배 타고 제주로 수학여행 가자!

4월만 비교하면 전년 대비 올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객이 671.5%나 많아졌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제주로 향해 중인 여객선에서 선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가 제주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해, 실제 향해 중인 배 위에서 수학여행단과 비상 탈출 훈련을 해보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 9,832톤급 카페리선 퀸메리2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목포 항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선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

KOMSA, 지능형CCTV로 여객선 안전 운항 모니터링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이동 감지와 바다 날씨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객선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작년까지 인천과 전남 목포·완도·군산 등 전국 4개 여객선터미널을 포함한 전국 주요 기항지 23곳에 '선박 특화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 '선박 특화 지능형 CCTV'는 AI 기술로 선박을 자동 인식해 선박 입출항 여부와 선박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제주, 경북 포항의 여객선터미널 등 주요 해상교통로 15~20곳에 '선박 특화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19억 원을 투입해 전국 9개 지역, 기항지 70여 곳에 '선박 특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3

수상레저기구 사고, 평일보다 휴일 2.9배 많아

최근 5년간 전국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평일보다 휴일에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레저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10건 중 8건은 모터보트에서 발생했다.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선박 수 총 1만 5,997척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38척(18.4%)을 차지했다. 이 중 2,030척(69.1%)이 여름(6~8월)과 가을(9~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관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상레저 활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		
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개발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교통연구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안전연구실	T.2450	F.2461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인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인천운항관리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당진지사(041) T. 358-8697~8 F. 358-8641	서울출장소(02) T. 2671-7838~9 F. 2671-7841
태안지사(041) T. 674-5447~8 F. 674-5449	세종지사(044) T. 330-2380 F. 330-2357 중부지사(044) T. 330-2285 F. 330-2363	속초 속초출장소(033) T. 635-5394 F. 631-6002 동해 동해지사(033) T. 535-8091, 8093 F. 535-8094 동해운항관리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보령운항관리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군산 군산지사(063) T. 452-8187~8 F. 452-8189 군산운항관리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포항 포항지사(054) T. 246-5394~5 F. 246-5396 포항운항관리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목포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6145 목포운항관리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완도 완도지사(061) T. 554-1474, 1480 F. 554-0069 완도운항관리센터(061) T. 555-4023~8 F. 555-4029	부산 부산지사(051) T. 638-6221~3 F. 638-6226 부산운항관리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여수 여수지사(061) T. 654-5262~3 F. 654-5265 여수운항관리센터(061) T. 662-9713~8 F. 662-9719	사천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창원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고흥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고흥운항관리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제주 제주지사(064) T. 721-7401~2 F. 702-7404 제주운항관리센터(064) T. 759-9780~3 F. 759-9786	통영 통영지사(055) T. 646-6011 F. 644-8661 통영운항관리센터(055) T. 649-8432~6 F. 649-8438

본사로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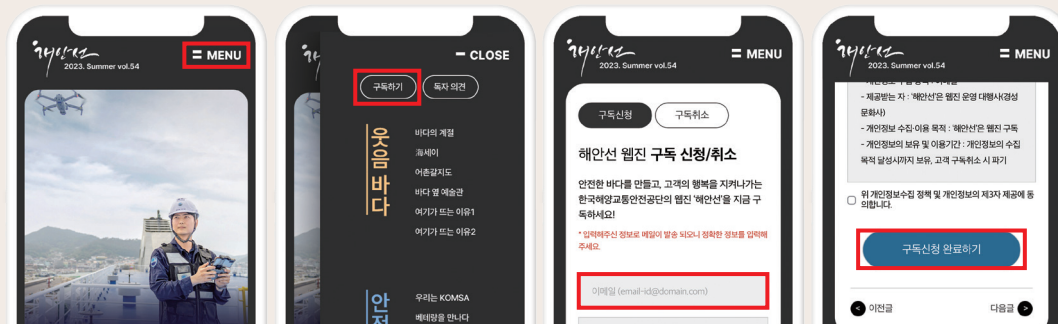


구독하고 선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안선>
웹진에 접속하셔서 <해안선>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참여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https://komsa-webzine.co.kr>



② 웹진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MENU' 버튼을 누른다.

③ 목차 부분의 상단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④ 개인 이메일을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⑤ 구독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참여 기간

2023년 7월 10일(월)~8월 11일(금)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해안선> 보고 독자 의견 남겨주세요!

매호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선박검사 더욱 편리하게!

2023년 4월 12일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경질유 사용 선박 및 소형 선외기 일반선 검사비용·시간 대폭 절감

경질유 사용 선박 연료탱크 개방검사 주기 단축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선	5년에 5회	5년에 1회 (정기검사 주기)
여객선 외 선박	5년에 2회	

선박 중간 검사 시 개방검사 면제!
(단, 5년 주기 정기검사 시 개방검사 받음)

개방검사준비 비용 약 5백만 원 절감 예상

평수 구역 항해 5톤 미만 선외기 일반선 정기검사시 바다 위에서 선체 검사

변경 전	변경 후
도크에 들어가거나 육지에 올려 선체 바닥 등 검사	수면 위 선내에서 바닥 등 선체 검사

※선외기 선박: 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
※도크: 선박을 건조, 수리, 검사하기 위한 시설로 물을 빼거나 넣어 선박을 바닥에 앉히거나 띄울 수 있음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비용 50만 원 절감 예상

검사소요 시간 3일 단축 기대